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설진희

박수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장인 여성들은 일-가정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208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내재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용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SR), 사회지향성 성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격 유형 척도(PSI-I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들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부정적 경험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기가치감을 확인 받고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내재화 문제, 사회지향성, 전일제 직장여성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

이 논문은 2018 BK+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 박수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 parksoohyun@yonsei.ac.kr

최근 들어 유자녀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7.9%가 ‘육아 부담’이 여성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통계청, 2018), 아직까지 자녀를 가진 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체력 및 자원상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 Emslie & Hunt, 2009). 특히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는 현 시점에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된다(이주일, 유경, 2010; Britto et al., 2017; Grzywacz & Marks, 2000). 또한, 자녀의 교육을 전통적인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취학 전부터 선행학습 등이 강조되면서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노성숙 등, 2012;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한편, 이 시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이 중시되는 시기가 아닐 수 있다. 해당 시기는 여성의 진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로, 근무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조직에 몸담고 있는 여성일 경우 대부분 중간관리자 직급에 해당되어 조직에서의 성취와 책임이 중시되며, 이에 따라 업무량도 증가하는 시기이다(안세연, 김효선, 2009; 양현정, 이기학, 2015b; 장재윤, 김혜숙, 2003; 최하영, 이소민, 이호택, 2017). 이

처럼 일과 가정에서의 업무와 역할이 증대되면서, 해당 시기에는 높은 수준의 다중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전업주부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박성옥, 1997; 우영지, 이기학, 2015; 장미나, 한경혜, 2011; 한경혜, 장미나, 2011).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기존의 일-가족 연구들은 일과 가정의 관계에서 방향성을 가정하여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work-family interference)과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family-work interference)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대부분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Cinamon & Rich, 2002; Sumer & Knight, 2001). 이와 같은 일-가정 갈등은 여성의 우울, 불안,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 알코올 사용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Carlson & Perrewé, 1999; Frone, Russell, & Barnes, 1996; Grzywacz & Marks, 2000). 이와 같은 관점은 직장여성이 한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력적, 시간적 한계와 같은 물리적 어려움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즉, 각 역할과 관련된 방향성 또는 여성이 맡은 역할 그 자체가 더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이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중역할 자체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을 포함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안되고 있다. 일-가족 다중역할

(multiple role)은 직장과 가족의 일원으로 두 영역에서 각각 부과되어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최윤정, 김계현, 2009). 그리고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란 일-가족 다중역할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이다(양현정, 이기학, 2015a). 일-가정 부정적 경험에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이나 가정과 같은 단일 영역에서의 체력적, 물리적 한계와 더불어 두 영역 모두에서 부과되는 역할로 인해 경험되는 소진이나 과부하가 포함되어있다. 이는 일과 가족에서 수행하는 다중역할 자체가 여성에게 시간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Woods-Giscombé, 2010)와 국내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다중역할을 ‘두 세계의 긴장 속 전력질주’라고 묘사하면서 다중역할 수행 자체에 대한 체력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보고하였던 질적 연구를 반영하는 개념이라 간주될 수 있다(최정숙, 2011).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있다. 또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에는 전업주부와의 교류갈등이 포함되어 있어(양현정, 이기학, 2015a),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일 영역만을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일-가정 다중역할에 따른 부정적 경험은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물리적 어려움에 더불어, 심리적 어려움과 육아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의의가 있다.

내재화 문제

내재화 문제는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부정적 반응을 구분하는 시도로,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의 경험적 접근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분류를 지지하면서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이나 탈억제가 주된 특징인 외현화 문제와 다르게, 내재화 문제는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와 심리적 고통(distress)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고 밝혔다(Achenbach et al., 2016; Eaton et al., 2015; Forbes et al., 2016). 내재화 문제는 크게 우울, 불안, 신체증상과 같은 개인 내적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Achenbach, Edelbrock, 1983; Caspi et al., 2014).

유자녀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내재화 문제는 여성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을 반영할 뿐 만 아니라 일과 가정에서 여성이 맡고 있는 역할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높은 우울은 조직 장면에서의 생산성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Herrman et al., 2002; Wang & Gorenstein, 2015), 실직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Kessler, 2012). 한편, 내재화 문제는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를 들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온정적이고 섬세한 양육보다는 성마르고, 적대적인 양육을 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이처럼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에게 있어 내재화 문제는 개인에게는 심리적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맡고 있는 대인관계 영역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내재화 문제와 연관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은 유자녀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요인일 수 있다. 일-가정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전업주부인 여성이나 직장인 남성보다 높은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한다(Adhikari, 2012; Fujimoto, Shinohara, & Oohira, 2014). 또한, 여성과 배우자 모두 전일제 직장인일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경험하지만 여성은 퇴근 후 육아와 가정생활에 배우자보다 더 많은 시간 할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희, 이은희, 2000; 황혜원, 신정미, 2009). 다중역할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기대 또는 주변의 평가와 자신이 지각한 실제 수행간 차이는 높은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인이었다(하오령, 권정혜, 2006). 또한 문화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직장여성들에 비해 한국 직장여성들이 더 높은 우울을 호소했다(O'Brien, Ganginis Del Pino, Yoo, Cinamon, & Han, 2014). 이로 볼 때 다중역할에서 비롯된 여성들의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은 내재화 문제의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역할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근심, 걱정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이 다중역할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인이었다는 점에서(Baruch, Biener, & Barnett, 1987), 여성들이 다중역할을 병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다중역할 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거나 여성들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

회적 시선과 편견이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자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다중역할 수행경험 질적 분석 결과, “자녀에 대한 평가적 시선”, “엄마인 나에 대한 시선”, “전업주부들과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시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 및 두려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전업주부와의 교류 갈등’과 같은 직접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중 하나의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양현정, 이기학, 2015a).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은 자녀 및 회사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소남, 신창식, 2011).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할 때 다중역할을 병행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시선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은 이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생애 발달은 가정, 직장과 같은 미시체계, 이웃, 대중매체과 같은 외체계, 사회적 규준, 가치와 같은 거대체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을 참고했을 때(최윤정, 김계현, 2010; Cook, Heppner, & O'Brien, 2005), 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기존 연구들은 환경적 변인들이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배우자, 상사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조운진, 유성경, 2012; 하오령, 권정혜, 2006; Frye & Breaugh, 2004).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변인은 여성이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을 보다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과 연결시켜 확인하고자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근대적 성역할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윤미, 이지연, 박미란, 2013; 이주희, 이은희, 2000; 장효주, 연구진, 2016; Clark, Michel, Early, & Baltes, 2014). 그러나 성역할 태도는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내 책임이다”와 같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어(박영희, 2018),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가정, 조직, 또는 더 넓게 사회를 얼마나 자신과 결부된 것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시선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상황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는 여성 개인 내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역할

사회적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개인의 특성에는 사회지향성(sociotropy)이 있다(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Beck et al., 1983). 이는 “내 행동이 상대방의 기대와 일치할 때가 가장 편하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느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와 같이 사회적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변화시키고,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성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욕구와 관련되므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취약한 성격-인지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Beck, 1983; Girus & Nolen-Hoeksema, 2006; Robins, Bagby, Rector, Lynch, & Kennedy, 1997). 사회지향성은 생애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며, 개인의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상황에 대한 인지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Bagby et al., 2001; Blatt & Zuroff, 1992; Luyten & Blatt, 2013).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와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신경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안과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인지 특성으로도 제안되었다(Bagby et al., 2001; Sutton et al., 2011). 사회지향성은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요인으로도 밝혀졌는데 특히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우울과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Robins et al., 1994, 1997; Sutton et al., 2011), 높은 불안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다(김지화, 신현균, 2011; 박지현, 방희정, 2013; 양혜미, 이봉건, 2016; 조나영, 이민규, 2017; Shin et al., 2010; Bagby et al., 2001). 특히 사회지향성은 사회불안의 유형 중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에 더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성이 시사된다(조나영, 이민규, 2017). 이처럼 사회적 평가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Green, Scott, DeVilder, Zeiger, & Darr, 2006).

이에 더해, 사회지향성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Exline, Zell, Bratslavsky, Hamilton, & Swenson, 2012), 다중역할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시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서 논의한대로 한국 문화에서는 여전히 자녀에 대한 시선이 존재하며, 엄마, 직장인으로 사회적으로 평가되며(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다중역할 수행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가 엄연히 존재하여(Sumra, & Schillaci, 2015),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높은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우울 및 불안 등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오령, 권정혜, 2006).

또한,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중역할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중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배우자, 상사의 지지, 사회적 지지 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 확인되었다(조윤진, 유성경, 2012; 하오령, 권정혜, 2006; Frye & Breugh, 2004; Marcinkus, & Whelan-Berry, 2007). 그러나 외국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직장여성에게 제공되는 회사나 배우자의 실질적 도움은 부족한 편이라 (O'Brien et al., 2014), 적극적인 문제해결적 태도를 사용하여 지지를 추구하거나, 외적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이 다중역할에 따른 부정적 경험 감소에 필수적이다(김은석, 유성경, 임인혜, 박찬정, 임지숙, 2017; 우영지, 이기학, 2016). 그러나 높은 사회지향성이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었으며, 낮은 자기주도성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Otani et al., 2011), 사회지향성이 높

은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적 대처를 사용한다(Connor-Smith & Compas, 2002; Lynch, Robins, & Morse, 2001). 이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적 태도가 대인관계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지적 왜곡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Jackson, Weiss, Lunquist, & Soderlind, 2005; Mongrain & Zuroff, 1994). 이에 사회적 도움을 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외적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대처를 하기보다는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대처는 비효과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심화시키고,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조윤진, 유성경, 2012; 최윤정, 김계현, 2010; Greenhaus & Powell, 2006; Lee Baggley, Preece, & DeLongis, 2005).

연구 개관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이 관계에서 사회지향성, 즉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개인 내적 인지 특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와 정적인 상관을 보임과 동시에, 다중역할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에 회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내재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제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에게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의 유자녀 직장여성 330명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였다. 리서치 업체를 통하여 모집문건을 발송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가자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모집된 330명의 자료 중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n=238)가 일차적으로 선택되었으며 이 중 전일제 직장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대상자(n=22)와 배우자가 전일제 직장인이 아니라고 답한 대상자(n=6), 불성실한 응답(n=2)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08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승인번호: 7001988-201807-HR-374-05)을 받고 진행되었다.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도구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유자녀 직장여성들의 다중역할에 따른 부정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현정과 이기학(2015a)에 의해 개발 및 타당화된 일-가정 다중역할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의 문화특수성을 반영하여 유

표 1. 미취학 자녀를 둔 전일제 직장여성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전체(N=208)	%
나이		
20대	21	10.1
30대	162	77.8
40대	25	12.1
학력		
대학원졸	21	10.1
대졸	177	85.1
고졸	10	4.8
직업유형		
기능직	23	11.1
자영업자	2	1
사무직	164	78.8
관리직	2	1
전문직	16	7.7
예술직	1	0.5
근무경력		
5년이하	39	18.8
5년~10년이하	93	44.8
10년~15년 이하	57	27.5
15년~	19	9.2
월수입		
200만원 미만	32	15.4
200만원~400만원	130	62.5
400만원~600만원	36	17.3
600만원 이상	10	4.8
결혼기간		
5년이하	87	41.7
5년~10년이하	95	45.7
10년~	26	12.5
배우자 직위		
중간관리직	139	66.8
중간관리직이상	13	6.2
중간관리직 이하	56	26.9
배우자 수입		
200만원 미만	13	6.3
200만원~400만원	120	57.7
400만원~600만원	62	29.8
600만원 이상	13	6.3
경제수준		
중류 중에 상	20	9.6
중류 중에 중	97	46.6
중류 중에 하	73	35.1
하류	18	8.7
육아도움 제공자 여부(중복가능)		
가사 도우미	13	6.3
자녀의 조부모	127	61.1
베이비시터	13	6.3
도움 없음	71	34.1

자녀 직장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다(예를 들어,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느라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전업주부들과 관계맺는 것이 부담스럽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는 소진 및 과부하, 가족일 갈등, 일-가족 물리적 갈등, 전업주부와의 교류갈등, 일-가족 심리적 갈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역할 수행하면서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현정과 이기학(2015a)에서 일-가족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과 .57, 우울과 .45의 상관을 보여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한국판 Personal Style Inventory-II (PSI-II)

대상자들의 사회지향성 인지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Personal Style Inventory-II (PSI-II)를 사용하였다. Beck 등(1983)이 개발한 Sociotropy and Autonomy Scale(SAS)을 Robins 등(1994)이 Modified version of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PSI)로 개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규(2000)가 이를 번안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PSI-II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사회지향성 하위척도와 자율지향성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을 측정하는 24문항을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느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 사회지향성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6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하

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사회지향성은 ‘인정에 대한 욕구’, ‘타인에 대한 배려’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향성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로 나타났으며(이민규, 2000),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dult Self Report; ASR)

유자녀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성인용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SR)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Achenbach와 Rescorla(2003)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김민영 등(2014)에 의해 한국에서 타당화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ASR 중에서 내재화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3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우울 18문항, 위축 9문항, 신체증상 12문항의 총점을 합하여 산출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인 증상에 대하여 3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증상의 빈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오경자, 김민영(2014)의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간이정신진단검사 총점과 비교했을 때 .85의 상관계수를 보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대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 척도

유자녀 직장여성이 다중역할과 관련된 경험에서 배우자 지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Buffardi와 Erdwins(1997)가 개발하고 조윤진과 유성경(2012)이 번안한 배우자의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재정적 지지, 가사일을 돕는 정도와 육아를 돕는 정도에 대하여 만족함을 의미한다. Buffardi와 Erdwins(1997)의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 시행된 조운진과 유성경(2012)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version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마다 문항 개수와 총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일-가정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접근은 매개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의 유무만을 판단할 뿐,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방법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번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경제수준, 학력, 수입과 같은 변인은 국내 여성의 내재화 문제, 일-가정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장재운, 김혜숙, 2003; 정영금, 2005; 조운진, 유성경, 2012), 배우자의 지지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 일-가정 부정적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안된 바 있다(하오령, 권정혜, 2006).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경제수준, 학력, 수입, 배우자의 지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표 2에 정리하였다. 내재화 문제에 대하여 사회지향성($r=.558, p<.01$)과 일-가정 부정적 경험($r=.437, p<.01$)은 정적 상관관계($r=.530, p<.01$)를 보였다. 내재화 문제는 하위 척도인 불안/우울($r=.971, p<.01$), 위축($r=.922, p<.01$), 신체증상($r=.804,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변인인 배우자 지지는 일-가정 부정적 경험($r=-.246, p<.01$), 내재화 문제($r=-.270, p<.01$)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지향성과의 상관관계($r=-.067, p>.0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1. 일-가정 부정적 경험	1						
2. 사회지향성	.431**	1					
3. 내재화 문제	.530**	.558**	1				
4. 불안/우울	.506**	.573**	.971**	1			
5. 위축	.459**	.479**	.922**	.848**	1		
6. 신체증상	.492**	.417**	.804**	.695**	.650**	1	
7. 배우자 지지	-.246**	-.067	-.270**	-.247**	-.255**	-.249**	1
<i>M</i>	97.63	83.3	17	9.66	4.08	3.26	19.29
<i>SD</i>	20.45	17.7	12.94	7.31	3.92	2.76	4.77

** $p < .01$.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절차를 사용하였다. 경제수준, 학력, 수입, 배우자의 지지를 통제한 후에, 일-가정 부정적 경험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309, t=7.95, p<.01$)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193, t=5.02, p<.01$). 다음으로,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

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수를 재추출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Hayes, 2013). 그 결과, 사회지향성의 간접효과 계수는 .116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했을 때, 하한값 .065, 상한값 .180이었다.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지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Hayes, 2013). 따라서,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사회지향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표 3.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표준화계수 (<i>B</i>)	표준오차 (<i>SE</i>)	<i>t</i>	<i>p</i>	95% 신뢰구간	
내재화 문제	총 효과	.309	.039	7.946***	.000	(.232, .386)
	직접효과	.193	.039	5.019***	.000	(.117, .269)
	간접효과	.116	.029			(.065, .18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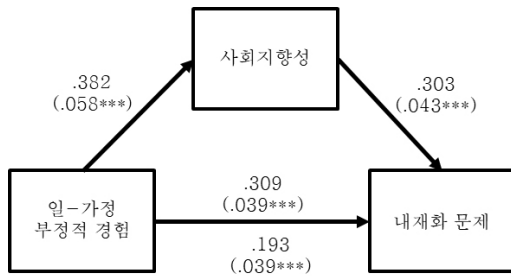


그림 1.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매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값이 위에 제시되어 있다. 일-가정 부정적 경험에서 내재화 문제로 가는 화살표 위의 계수는 총 효과를 나타내고, 화살표 아래 계수는 직접효과를 나타낸다.

*** $p < .001$.

가설이 지지되었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매개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부정적 경험, 사회지향성 및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일-가정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보다 발전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일-가정 다중역할에서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 두 영역의 다중역할로 인한 심리적, 체력적 소진이나 과부하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까지 반영한 일-

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양현정, 이기학, 2015a)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의의가 있다. 이는 두 영역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은 직장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높은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일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임승락, 김지혜, 이동수, 김이영, 2000; 하오령, 권정혜, 2006; Adhikari, 2012; Fujimoto et al., 2014; O'brien et al., 2014). 또한, 일이나 가정 중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양쪽에서의 과도한 역할을 책임지게 되는 것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특히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윤미, 이지연과 박미란(2013)이 배우자의 지지가 다중역할 경험과 내재화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던 것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지지와 다중역할 경험, 내재화 문제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배우자의 지지가 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우자의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의 영향 이상으로 일-가정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여성의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하오령, 권정혜, 2006). 이러한 차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맥락과 배우자의 지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해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최운정, 김계현, 2010). 즉,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배우자에게 가정에서의 역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서적 지지에 만족하기도 하는데(송다영 등, 2010; 조운진, 유성경, 2012; Greenhaus & Powell, 2006), 이 때문에 배우자의 지지가 일-가정 다중역할 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의 지지의 효과가 이상으로 다중역할에서 비롯된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했던 것 또한 여성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다중역할 갈등을 완화하거나, 내재화 문제에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지지체계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해 볼 때, 배우자의 지지는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그 이상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들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은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지향성을 통하여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지향성과 연관된 인지 도식이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재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지화, 신현균, 2011; 박지현, 방희정, 2013; 양혜미, 이봉건, 2016; Beck, 1983; Craven, 2007; Shin et al., 2010). 즉, 사회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사회적 상황에

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를 자기가치감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우울의 심리적 과정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ames, Hagan, & Joiner, 2013). 또한, 사회지향성은 사회적인 평가에 민감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전반적인 불안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Blatt & Zuroff, 1992; Sutton et al., 2001). 이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최근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ames et al., 2013). 예를 들어, 가족들의 지지 정도, 사회적 수용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은 우울과 불안의 발현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이후 회피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Starr & Davila, 2008).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가치감을 사회적 맥락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행동이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은 아내, 피고용인, 어머니, 주부의 총 네 가지로 개념화되는 정체성과 각각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 여성이 다양한 사회적 평가 상황에 놓이게 되어(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Sumra, & Schillaci, 2015), 보다 더 내재화 문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지향성은 다양한 정체감 및 역할에 있어서 평가를 받게 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에게 보다 더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시선과 기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다. 성역할태도는 다중역

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시선이나 평가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나,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과(유계숙, 2012),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가정에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장재윤, 김혜숙, 2003), 여성에게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역할을 인식하는 정도를 확인한 소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이진숙, 이슬기, 2015),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정, 2018).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수용을 추구하는 인지 특성을 측정하여,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평등적인 가치관이 중시되며,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18),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사회적 상황에서(이주일, 유경, 2010; Britto et al., 2017; Grzywacz & Marks, 2000), 여성은 일-가정 다중역할에서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중역할 수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자신의 가치감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이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Herrman et al., 2002;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Wang & Gorenstein, 2015).

본 연구결과는 사회지향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회지향성은 다중

역할 갈등에 대한 핵심적인 대처전략인 사회적 지지 추구를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겠다(우영지, 이기학, 2016; Clark et al., 2014; Rotondo, Carlson, & Kincaid, 2003). 사회적 지지 추구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의 경우, 배우자, 조직, 주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강혜련, 최서연, 2001; Clark et al., 2014; Frye & Breaugh, 2004; Grady & McCarthy, 2008; Lapierre & Allen, 2006). 그러나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도움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나치게 요구적인(demanding) 모습으로 인식하여 결국 도움을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Lynch, Robins, & Morse, 2001),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 생각 또는 행동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xline, Zell, Bratslavsky, Hamilton, & Swenson, 2012; Jackson, Weiss, Lunquist, & Soderlind, 2005; Mongrain & Zuroff, 1994).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사회지향성의 특성은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부정적 경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다양한 대처전략의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중역할 갈등의 해결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 도움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Kim, Sherman, Taylor, 2008), 유자녀 직장여성의 사회지향성은 실질적 도움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지향성 특성이 높은 사람들이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결과도(Connor-Smith & Compas, 2002),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성 발휘를 저해하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조윤진, 유성경, 2012; 최윤정, 김계현, 2010; Greenhaus & Powell, 2006; Lee Baggle, Preece, & DeLongis, 2005).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문제 해결적 대처 능력과 함께 측정되어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의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간의 관련성과 더불어 어떤 과정을 통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의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단순한 관련성만 파악되어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위한 상담 혹은 교육이 필요할 때 효과적인 개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이소진 등, 2017), 이러한 관계성의 확인을 통해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방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후 치료적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Mazure, Bruce, Maciejewski, & Jacobs, 2000; Werbart, Aldén, & Diedrichs, 2017), 본 연구결과는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 개입에 있어서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향

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평가를 통해 과도하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인지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다(Blatt, Zuroff, Hawley, & Auerbach, 2010). 특히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지치료와 더불어 지지적인 개입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치료 계획을 성립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겠다(Werbart et al., 2017). 최근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다루면서 자기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포함하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 및 검증되었는데(유성경 등, 2018), 다양한 관계 속의 자신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Wong & Mak, 2013). 한편, 사회지향성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10회기에 걸쳐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Karahan, 2009), 추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취학 자녀를 둔 국내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검증된다면, 내재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일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자녀의 발달 단계가 어릴수록 다중역할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이주일, 유경, 2010; Britto et al., 2017; Grzywacz & Marks, 2000; Martinengo, Jacob, & Hill, 2010), 이들의 내재화 문제에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전체 유 자녀 직장여성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유자녀 직장여성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가치관과 성장배경 차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다중역할 경험과 이에 따른 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양현정, 이기학, 2015b; 정영금, 2005; 최정숙, 2011). 생애주기에 따라 다중역할을 통해 경험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양현정, 이기학, 2015b; Martinengo, Jacob, & Hill, 2010),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장배경 및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회지향성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나, 하위변인 수준의 관계는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손영미, 박정열, 양은주(2017)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신념이 각각 신체화 문제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화 문제, 우울, 불안 등 세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내재화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하위변인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유자녀 직장여성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순간에 경험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정서 또한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험표집법을 사용하여 맞벌이 부부가 일상에서 느끼는 긍정적·부정

적 정서를 탐색한 최근 연구는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시간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도 하였다(Offer, 2016). 이처럼 추후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다중역할 경험 및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인 경제수준, 학력, 수입, 배우자의 지지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으나,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가정 갈등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조직차원의 지지(조운진, 유성경, 2012), 자녀의 수(Frone, Russell, & Cooper, 1992; Goh, Ilies, & Wilson, 2015), 직장 경력(장재윤 & 김혜숙, 2003; 정영금, 2005)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역할 경험 및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환경적 변인들도 통제 후, 변인간의 관계를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부정적 경험만 고려했을 뿐 이에 따른 긍정적 경험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모든 유자녀 직장여성이 다중역할에서의 부정적 경험만을 보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긍정적 경험까지 고려하여 다중역할에 따른 경험의 질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다(김신희, 양은주, 2012).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중역할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모두 파악하여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련, 최서연 (2001). 기혼여성 직장-가정 갈등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23-42.
-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 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 김민영, 김영아, 이진, 김혜진, 오경자 (2014). 한국판 ASR (성인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3), 615-634.
- 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267-275.
- 김소정 (2018). 한국 임금근로 기혼여성들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일가족갈등의 매개효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 39-74.
- 김신희, 양은주 (2012).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의 질에 따른 군집별 심리적 및 환경적 특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73-93.
- 김윤미, 이지연, 박미란 (2013). 기혼 여교사의 배우자 지지, 다중역할 현실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교사 효능감. *상담학연구*, 14(1), 305-322.
- 김은석, 유성경, 임인혜, 박찬정, 임지숙 (2017). 일-가정 양립 촉진적 자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505-526.
- 김지화, 신현균 (2011). 우울증 소인으로서의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에 따른 대인관계 및 성취사건 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285-304.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함의. *한국정책연구*, 13(1), 51-75.
- 박영희 (2018).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결혼가치관 관계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박지현, 방희정 (2013). 여대생의 사회지향성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곤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53-674.
- 손영미, 박정열, 양은주 (2017). 일과 삶의 균형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신념과 정서명료성의 조절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333-359.
-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7-52.
- 안세연, 김효선 (2009). 기혼 여성 관리자의 이직의도에 관한 통합적 고찰. *여성연구*(77), 5-48.
- 양소남, 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양현정, 이기학 (2015a).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1), 25-54.
- 양현정, 이기학 (2015b).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

- 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긍정적 효과와 진로포부의 관계: 생애주기 단계별 비교. *상담학연구*, 16(3), 155-174.
- 양혜미, 이봉건 (2016). 대학생의 사회지향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고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1), 387-405.
- 오경자, 김영아 (2014). ASEBA 성인 행동평가 척도 매뉴얼. 서울: (주)휴노.
- 우영지, 이기학 (2016). 유자녀 직장 여성의 다중역할 수행 대처전략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173-194.
- 유계숙 (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111-125.
- 유성경, 임영선, 임인혜, 김태원, 정혜림, & 황민혜 (2018). 워킹맘의 일 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377-407.
- 이민규 (2000). 한국판 PSI-II (the Personal Style Inventory-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2), 305-317.
-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2017). 워킹맘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767-782.
- 이주일, 유 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 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3), 471-501.
- 이주희, 이은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 이진숙, 이슬기 (2015). 일-가족 양립정책 이용 이 일-가족 양립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5(1), 103-138.
- 임승락, 김지혜, 이동수, 김이영 (2000). 여성의 직무스트레스, 대처자원과 정신건강.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39(6) 999-1009.
- 임지숙, 임영선, 유성경 (2017). 출산 후 워킹맘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f).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11-245.
- 장미나, 한경혜 (2011).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생활경험. *가족과 문화*, 23(1), 1-39.
- 장재윤, 김혜숙 (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23-42.
- 장효주, 연규진 (2016). 기혼 여교사의 다중역할계획태도, 인지적 유연성, 성역할태도 및 관리자 민감성과 다중역할 경험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83-509.
- 정영금 (200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13-122.
- 조나영, 이민규 (2017). 대학생의 성격양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3), 603-627.
- 조윤진, 유성경 (2012). 기혼 취업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와 우울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441-463.
- 조혜정 (1981).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20, 81-111.

- 최윤정, 김계현 (2009). 진로상담: 여성 진로 상담 관점에서 본 다중역할 (일-가족) 유형의 구성개념 및 측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찰. *상담학연구*, 10(1), 365-384.
- 최윤정, 김계현 (2010). 대졸 기혼 직장여성의 개인특성, 환경적 지지 및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완화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49-1073.
- 최정숙 (2011). 일-가족 역할갈등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214-247.
- 최하영, 이소민, 이호택 (2017).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관리자의 직장-가정 간 전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51-191.
- 통계청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오령, 권정혜 (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 건강과 역할 만족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675-696.
- 한경혜, 장미나 (2011).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본 영, 유아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행복감. *한국가족복지학*, 16(4), 5-27.
- 황혜원, 신정미 (2009).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45-71.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Rescorla, L. (2003). *Manual for the ASEBA adult forms & profiles for ages 18-59: Adult self-report and adult behavior checklist*: ASEBA.
- Adhikari, H. (2012). Anxiety and Depression: Comparative study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Global Journal of Human-Social Science Research*, 12, 1-9.
- Bagby, R. M., Gilchrist, E. J., Rector, N. A., Dickens, S. E., Joffe, R. T., Levitt, A., & Kennedy, S. H. (2001). The st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otropy and autonomy personality dimensions as measured by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6), 765-77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uch, G. K., Biener, L., & Barnett, R. C. (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2(2), 130-136.
- Beck, A., Epstein, N., Harrison, R.,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5), 527-562.
- Blatt, S. J., Zuroff, D. C., Hawley, L. L., & Auerbach, J. S. (2010). Predictors of sustained therapeutic change. *Psychotherapy Research*, 20(1), 37-54.
- Britto, P. R., Lye, S. J., Proulx, K., Yousafzai,

- A. K., Matthews, S. G., Vaivada, T., ... & MacMillan, H. (2017). Nurturing care: promot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The Lancet*, 389(10064), 91-102.
- Buffardi, L. C., & Erdwins, C. J. (1997). Child-care satisfaction: Linkages to work attitudes, interrole conflict, and maternal separation anxiet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1), 84-96.
- Caspi, A., Houts, R. M., Belsky, D. W., Goldman-Mellor, S. J., Harrington, H., Israel, S., Meier M. H., Ramrakha, S., Shalev, I., Poulton, R., Moffitt, T. (2014). The p factor: One general psychopathology factor in the structure of psychiatric disorder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2), 119-137.
- Cinamon, R. G., & Rich, Y. (2002). Profiles of attribution of importance to life rol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212-220.
- Clark, M. A., Michel, J. S., Early, R. J., & Baltes, B. B. (2014). Strategies for coping with work stressors and family stressor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9(4), 617-638.
- Connor-Smith, J. K., & Compas, B. E. (2002). Vulnerability to social stress: Coping as a mediator or moderator of sociotropy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1), 39-55.
- Cook, E. P., Heppner, M. J., & O'Brien, K. M. (2005). Multicultural and gender influences in women's career develop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3), 165-179.
- Craven, G. M. (2007). *Sociotropy and autonomy in older adul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sonality styles, social support, and affect* (Doctoral dissertation, Massey University).
- Eaton, N. R., Rodriguez-Seijas, C., Carragher, N., & Krueger, R. F. (2015). Transdiagnostic factors of psychopathology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review.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0, 171-182.
- Emslie, C., & Hunt, K. (2009). 'Live to work' or 'work to live'? A qualitative study of gender and work-life balance among men and women in mid life. *Gender, Work & Organization*, 16(1), 151-172.
- Exline, J. J., Zell, A. L., Bratslavsky, E., Hamilton, M., & Swenson, A. (2012). People-pleasing through eating: Sociotropy predicts greater eating in response to perceived social press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1(2), 169-193.
- Frone, M. R., Russell, M., & Barnes, G. M. (1996). Work-family conflict, gender, and health-related outcomes: A study of employed parents in two community sampl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 57-69.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
- Frye, N. K., & Breaugh, J. A. (2004). Family-friendly policies, supervisor support, work-family conflict, family-work conflict, and satisfaction: A test of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9(2), 197-

- 220.
- Fujimoto, T., Shinohara, S. K., & Oohira, T. (2014).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for Employed Husbands and Wives in Japan: Moderating Roles of Self and Spousal Role Involvement. In J. H. McCormic & S. L. Blair (Eds.). *Family Relationships and Familial Responses to Health Issues* (pp. 135-162): Emerald Group.
- Girgus, J. S., & Nolen-Hoeksema, S. (2006). Cognition and depression. In C. Keyes & S. H. Goodman (Eds.). *Women and depression: A handbook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pp.147-17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h, Z., Ilies, R., & Wilson, K. S. (2015). Supportive supervisors improve employees' daily lives: The role supervisors play in the impact of daily workload on life satisfaction via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65-73.
- Grady, G., & McCarthy, A. M. (2008). Work-life integration: Experiences of mid-career professional working mother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5), 599-622.
- Green, M. A., Scott, N. A., DeVilder, E. L., Zeiger, A., & Darr, S. (2006).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 construal as a function of bulimic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7), 943-951.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Family, work, work family spillover, and problem drinking during mid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36-348.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26.
- Hames, J. L., Hagan, C. R., & Joiner, T. E. (2013). Interpersonal processes in depress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355-377.
- Herrman, H., Patrick, D., Diehr, P., Martin, M. L., Fleck, M., Simon, G., & GROUP, L. (2002).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depression outcomes in primary care in six countries: The LIDO study. Functional status, health service use and treatment of people with depressive symptoms. *Psychological Medicine, 32*(5), 889-902.
- Jackson, T., Weiss, K. E., Lunquist, J. J., & Soderlind, A. (2005). Sociotropy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eating disturbances among college women: Two prospective stud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3), 346-360.
- Karahan, T. F. (2009).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 Training Program on Sociotropy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9*(2), 787-797.
- Kessler, R. C. (2012). The costs of depression. *Psychiatric Clinics, 35*(1), 1-14.
- Kim, H. S., Sherman, D. K., & Taylor, S. E.

- (2008). Culture and Social Support. *American Psychologist*, 63(6), 518-526.
- Lapierre, L. M., & Allen, T. D. (2006). Work-supportive family, family-supportive supervision, use of organizational benefits, and problem-focused coping: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and employee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2), 169-181.
- Lee Baggley, D., Preece, M., & DeLongis, A. (2005). Coping with interpersonal stress: Role of Big Fiv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5), 1141-1180.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 Luyten, P., & Blatt, S. J. (2013).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in normal and disrupted personality development: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Psychologist*, 68(3), 172-183.
- Lynch, T. R., Robins, C. J., & Morse, J. Q. (2001). Couple functioning in depression: The rol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1), 93-103.
- Marcinkus, W. C., Whelan-Berry, K. S., & Gordon, J. R. (2007).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to the work-family balance and work outcomes of midlife women. *Women in Management Review*, 22(2), 86-111.
- Martinengo, G., Jacob, J. I., & Hill, E. J. (2010). Gender and the work-family interface: Exploring differences across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31(10), 1363-1390.
- Mazure, C. M., Bruce, M. L., Maciejewski, P. K., & Jacobs, S. C. (2000). Adverse life events and cognitive-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the prediction of major depression and antidepressant respon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6), 896-903.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47-458.
- O'brien, K. M., Ganginis Del Pino, H. V., Yoo, S.-K., Cinamon, R. G., & Han, Y.-J. (2014). Work,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Employed mothers in Israe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61.
- Offer, S. (2016). Free time and emotional well-being: Do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differ?. *Gender & Society*, 30(2), 213-239.
- Otani, K., Suzuki, A., Kamata, M., Matsumoto, Y., Shibuya, N., & Sadahiro, R. (2011). Relationships of sociotropy and autonomy with dimensions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in healthy subjects. *Comprehensive Psychiatry*, 52(5), 507-510.
- Robins, C. J., Bagby, R. M., Rector, N. A., Lynch, T. R., & Kennedy, S. H. (1997). Sociotropy, autonomy, and patterns of symptom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 comparison of dimensional and categorical approach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 21(3), 285-300.
-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4), 277-300.
- Rotondo, D. M., Carlson, D. S., & Kincaid, J. F. (2003). Coping with multiple dimensions of work-family conflict. *Personnel Review*, 32(3), 275-296.
- Starr, L. R., & Davila, J. (2008).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je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4), 762.
- Sumer, H. C., & Knight, P. A. (2001). How do people with different attachment styles balance work and family? A personality perspective on work-family linkag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4), 653-663.
- Sumra, M. K. & Schillaci, M. A. (2015). Stress and the Multiple-Role Woman: Taking a Closer Look at the "Superwoman". *PLoS ONE* 10(3), 1-24.
- Sutton, J. M., Mineka, S., Zinbarg, R. E., Craske, M. G., Griffith, J. W., Rose, R. D., Mor, N. (2011). The relationships of personality and cognitive styles with self-reporte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5(4), 381-393.
- Wang, Y. P., & Gorenstein, C. (2015). Gender differences and disabilities of perceived depression in the workpla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6, 48-55.
- Werbart, A., Aldén, S., & Diedrichs, A. (2017). Changes in the anaclitic-introjective personality configurations following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with young adults. *Research in Psychotherapy: Psychopathology, Process and Outcome*, 20(1), 30-42.
- Wong, C. C., & Mak, W. W. (2013). Differentiating the role of three self-compassion components in buffering cognitive-personality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mong Chinese in Hong Ko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162-169.
- Woods-Giscombé, C. L. (2010). Superwoman schema: African American women's views on stress, strength, and healt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0(5), 668-683.

논문 투고일 : 2018. 12. 10

1 차 심사일 : 2018. 12. 12

게재 확정일 : 2019. 02. 21

The Effect of Negative Experience Related to Work-Family Multiple Roles on Internalizing Problems of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otropy

Jin Hee Sul

Soo Hy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Negative experience related to work-family multiple roles has been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in mothers. In particular,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report high degree of stress. As such, the need to examine potential factors that may explain and alleviate such difficulties has been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u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otrop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work-family multiple role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Scale, Adult Self Report (ASR) Scale, and Personal Style Inventory-II (PSI-II), were completed by 208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rect effect of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on internalizing proble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sociotropy in this relationship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otropy in employed mothers may indirectly explain internalizing problems related to multiple roles. The implications of sociotropy in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and internalizing problems are discussed.

Key words :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internalizing problem, sociotropy, employed mothers